산업통상자원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8. 10.(수) 11:00 < 8.11.(목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8. 10.(수)	
담당 부서	제조산업정책관	책임자	과 장	권혜진 (044-203-4330)
	조선해양플랜트과	담당자	주무관	정희성 (044-203-4339)

7월 조선업, 압도적 수주경쟁력으로 세계 1위 이어나가

- 전세계 LNG운반선 전량 수주, 친환경선박 81% 점유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 이하 '산업부')는 국내 조선업계가 `22년 7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중 55%를 수주하며, 올해 상반기에 이어 세계 1위 수주실적을 유지해 나갔다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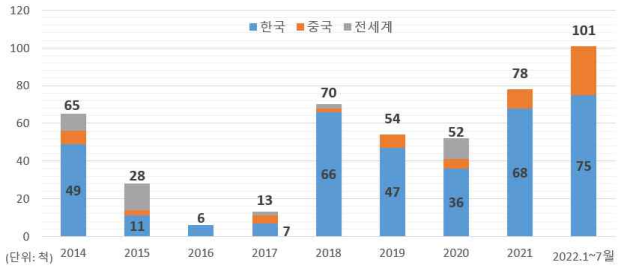
□ 7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총 72척, 211만CGT(53억불)의 선박이 발주되었는데,

○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 17척(전량 8천TEU 이하 중소형), 탱커 16척, LNG운반선 12척(전량 대형), 벌커 11척, 기타 16척 등으로, 전체 발주량 중 우리나라 주력선종인 고부가·친환경선박*의 비중이 높았다.

* 발주량 중 고부가선 비중: 49%(103/211만CGT), 친환경선 비중: 60%(127/211만CGT)

○ 특히, LNG운반선의 경우 7월에 총 12척이 발주되면서 올해 누적(1~7월)으로 총 101척의 발주 척수를 기록하였고, 이로써 하반기 추가 발주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역대 최고 발주량을 기록하였다.

< 전 세계 LNG운반선 연간 발주 및 수주량 추이 ('22.8.2. 클락슨 기준) >



□ 7월에 우리나라는 총 19척, 116만CGT(30억불)을 수주하여 수주량 기준으로는 55%, 수주금액 기준으로는 57%를 점유하며 세계 1위를 달성하였다.

< '22.7월 국가별 수주실적 비교 ('22.8.2. 클락슨 기준) >

구분	수주량(만CGT) 및 비중	수주금액(억불) 및 비중	수주 척수
전 세계	211	53	72
한국	**116 (55%)**	**30 (57%)**	**19**
중국	63 (30%)	15 (29%)	37
일본	6.3 (3.0%)	1.3 (2.4%)	2

○ 선종별로는 LNG운반선 12척, 컨테이너선 3척(1,800TEU 피더급), 탱커 3척, 여객화물겸용선 1척을 수주하였다.

○ 특히, 전 세계 LNG운반선 발주물량 전량, 친환경선박 발주물량의 81%을 우리나라가 수주함으로써 독보적 1위 실적 달성을 가능케 하였다.

< '22.7월 고부가 및 친환경 선박 수주실적 비교 ('22.8.2. 클락슨 기준) >

구분	고부가 선박* (174k ㎥↑ 대형 LNG 운반선)	친환경 선박 (LNG, 메탄올 등 대체연료 사용)
전 세계	12척, 103만CGT	25척, 127만CGT
한국	12척, 103만CGT(100%)	12척, 103만CGT(81%)
중국	-	8척, 21만CGT(17%)
일본	-	-

* 대형 컨테이너선, 초대형유조선(VLCC)은 전세계 발주 없음(VLCC의 경우 '21.2H부터 발주 없음)

□ 올해 우리나라의 지속된 수주 호조를 기반으로 대형 및 중형 조선사 모두 높은 수주실적을 기록하였다.

< '22.1~7월 우리나라 조선사 수주액 비교 (단위: 억불, 각사 발표 기준) >

대형조선사	목표	수주액	비율	중형조선사	수주액
한국조선해양	174.4	177.9	102%	케이조선	13.8
삼성중공업	88	63	71.6%	대한조선	4.85
대우조선해양	89	64.3	72.3%	대선조선	2.1
합계	351.4	305.2	86.9%	HJ중공업	3.9
				합계	24.65

○ 대형 조선사는 `22.1~7월 누적 기준으로 305.2억불의 수주액을 달성하였는데, 이는 올해 수주 목표액인 351.4억불의 87%에 해당하며,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액인 298.5억불 대비 2.2% 증가한 수치이다.

○ 중형 조선사의 경우에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소형 컨테이너선 및 탱커 등 총 31척, 24.65억불을 수주하며, 지난해 같은 기간(18.5억불) 대비 33% 증가한 수주액을 기록하였다.

□ 우리나라 조선사의 7월말 현재 수주잔량은 3,586만CGT로 전년 동월(2,850만CGT) 대비 26% 증가하면서, 전세계 수주잔량 증가율 9.2%(9,272→10,126만CGT)를 크게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다.

* 같은 기간 중국은 12% 증가(3,775→4,237만CGT), 일본 13% 감소(1,130→986만CGT)

□ 한편, 선가지수*는 `20.11월 코로나 영향으로 저점(125.06)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, `22.7월에는 161.57을 기록함으로써 `09.1월(167.11) 이후 16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.

* 클락슨 신조선가지수: '88.1월의 선박 건조 비용을 기준(100)으로 하였을 때, 비교 시점의 선박 건조 비용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

○ 특히, 대형 LNG운반선의 평균선가*는 척당 2.36억불로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, `21.12월(2.1억불)부터 8개월째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.

* 클락슨에서 발표하는 수치로 '14.10월 수치부터 집계

□ 산업부는 '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선박 수요 증가, 러-우 전쟁에 따른 LNG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친환경 선박 및 LNG운반선 중심의 국내 수주 호조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' 되며,

○ '특히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상당한 수주잔량으로 수익성을 감안한 선별 수주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, 하반기에는 업체별로 수익구조 개선이 기대' 된다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